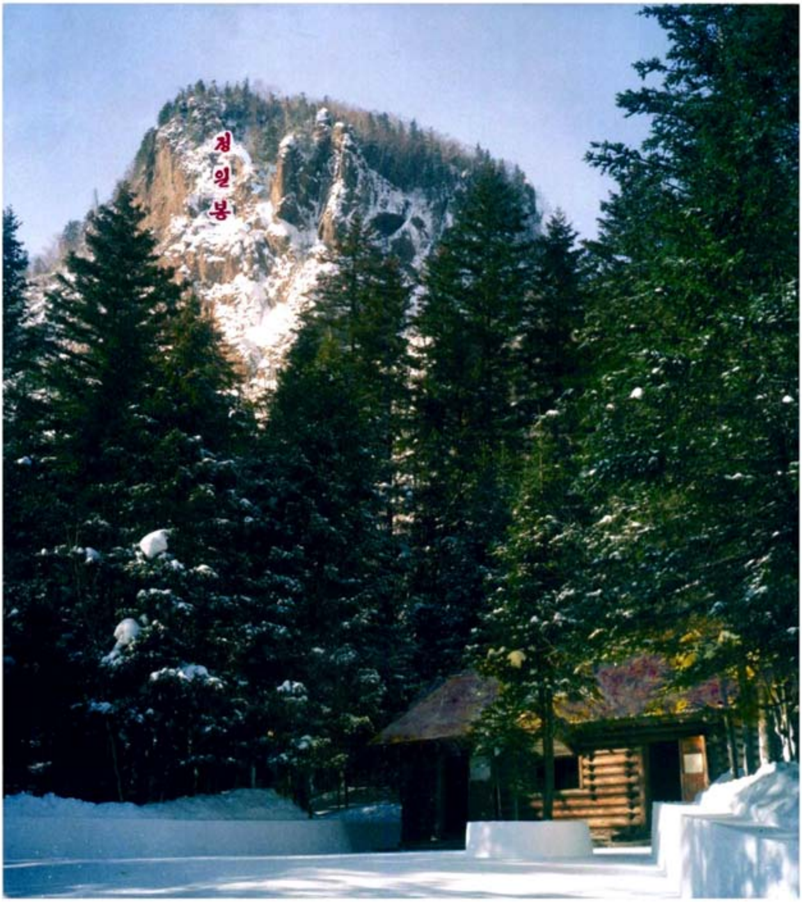
차 례

제 1 과
광 명 성 절



제 2 과
백두산밀영고향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



고향집의 쪽무이포단과 이불



책상, 놀이감

제 3 과
위대한 원수님의 아버님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

제 4 과
위대한 원수님의 어머님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신 회령고향집

제 5 과
위대한 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할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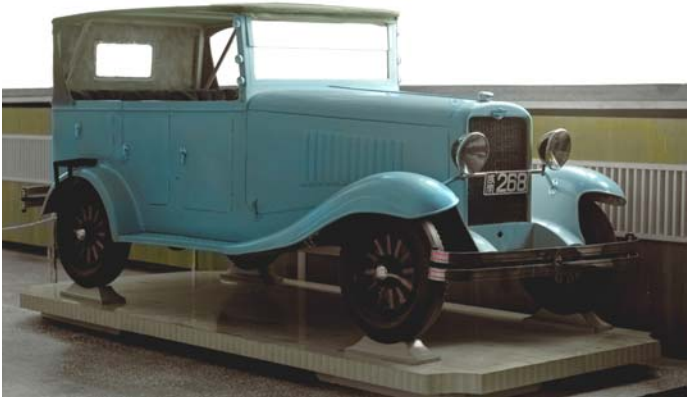
만경대순화학교



칠골초가집

제 6 과
위대한 원수님의 작은할아버님이신 김형권선생님과 삼촌이신 김철주선생님





작전터와 조선혁명군무장소조원들이 빼앗아 탄 자동차

제 7 과
위대한 원수님의 외할아버지이신 김춘산선생님과 외할머니이신 오씨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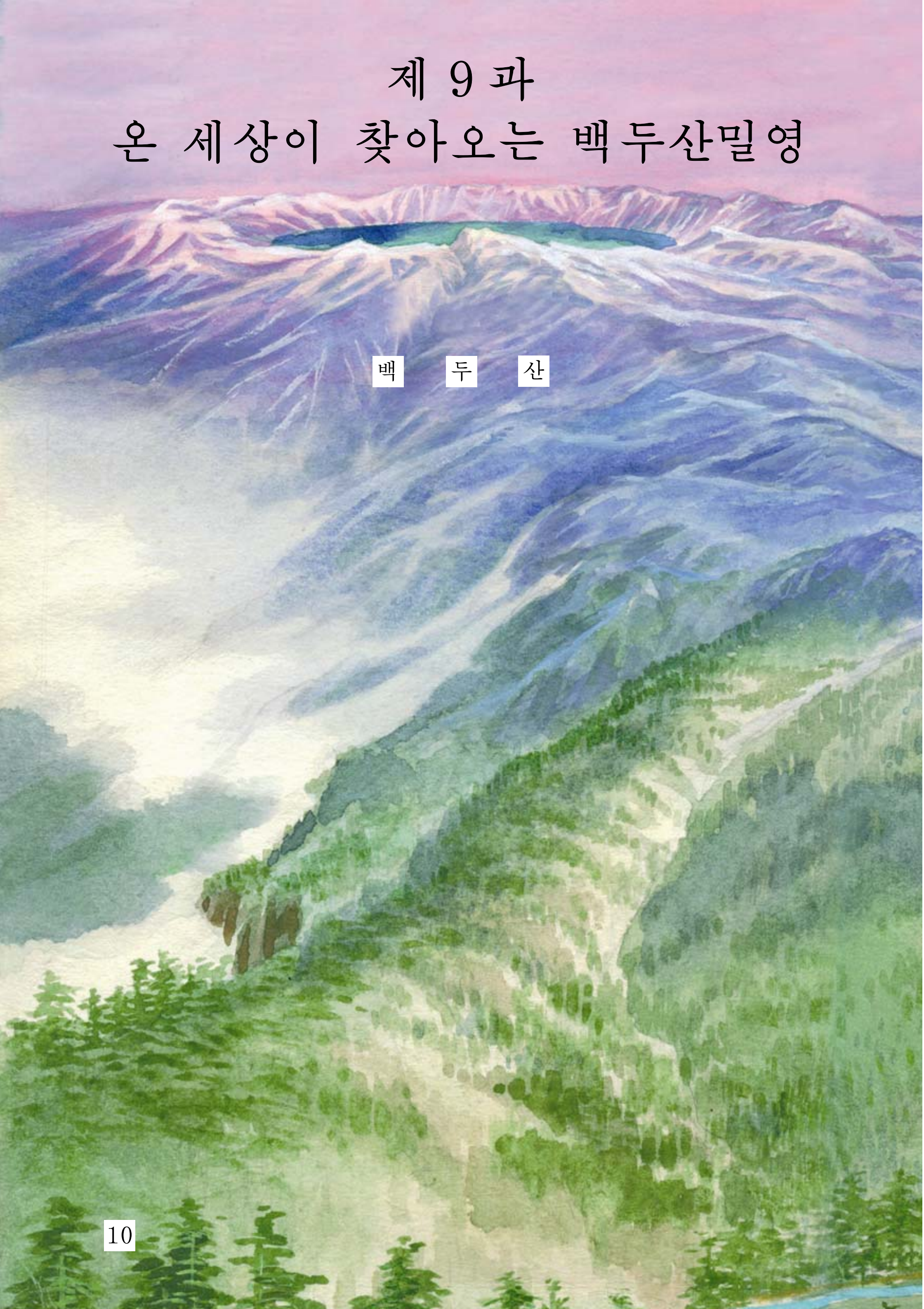

화로와 농

제 8 과
위대한 원수님의 외삼촌이신 김기준, 김기송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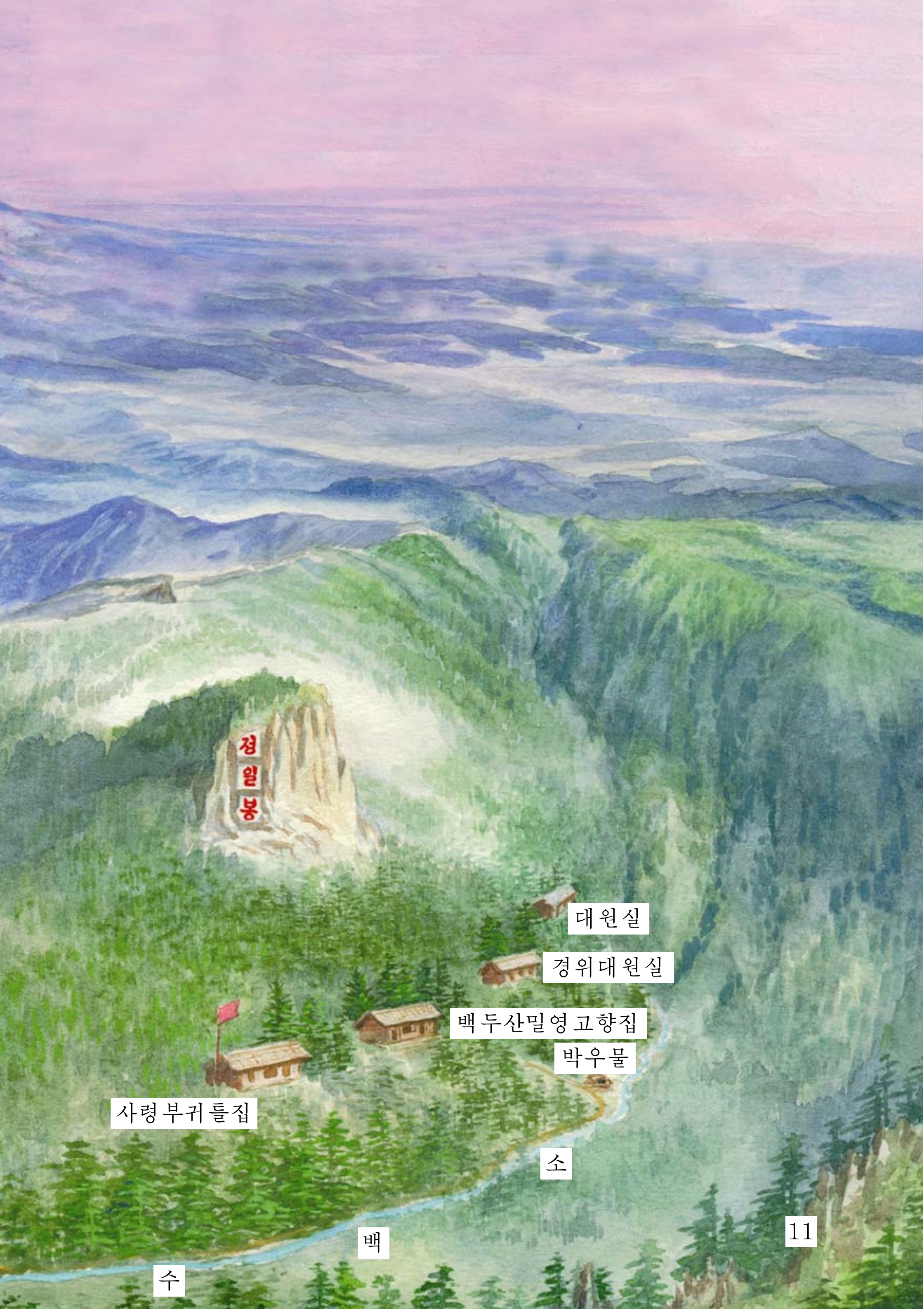


김기송선생님께서 리용하시던 나팔

제 9 과
온 세상이 찾아오는 백두산밀영



백 두 산


정일봉
대원실
경위대원실
백두산밀영고향집
박우물
사령부귀틀집
소
백
수



정일봉



송시비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던 사령부귀틀집



대원실

제 10 과

눈을 쓰신 이야기

겨울 어느날이였습니다.

유격대가 자리잡은 밀림에 눈이 내리고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방비를 들고 밖으로 나오시여 마당의 눈을 쓰시였습니다.

한 녀대원이 눈이 멎은 다음에 자기가 쓸겠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오실 길인데 자신께서 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눈을 다 쓰시였을 때 아버지장군님께서 돌아오시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우리 **정일**이가 참 용한데?! 벌써 아버지를 생각할줄 알구.》 하시며 기뻐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위하시는 마음이 깊으시였습니다.

제 11 과

나누어드신 흰쌀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어쩌다 흰쌀밥 한공기가 생긴 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위병이 있는 유격대아저씨가 생각나 그를 데려오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밥을 반공기씩 나누어주

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저씨는 밥을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 먹겠어요.》

위대한 원수님께서도 밥공기를 내려놓으시였습니다.

아저씨는 더 어쩔수 없어 밥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밥을 드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남을 위하는 마음이 크시였습니다.

제 12 과

《**김일성**장군 만세!》

해방후 처음으로 맞는 양력설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만경대를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께 큰절을 드리시였습니다.

증조할아버님께서는 다음날 고이 간수해두시였던 벼루를 꺼내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나어린 원수님께 무슨 글을 쓰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붓을 드시고

이렇게 쓰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 만세!》

그 글발을 보신 증조할아버님께서는 무릎을 치며 《옳다, 네가 만경대집의 혈통을 타고났구나.》라고 말씀하시며 감탄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나가실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13 과

나는 밖에 나가서 놀겠어요

어느 겨울날 점심시간이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께 아침에 약속하신 새 노래를 배워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타시는 풍금소리에 맞추어 발뒤꿈치를 들썩이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풍금우에 올려놓으셨던 손을 슬며시 내리우시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밖에 나가서 놀겠어요. 노래는 이담에 배우겠어요.》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의아해하시며 바깥날씨가 사납다고 하시였습니다.

나어린 원수님께서는 팽이를 치면 춥지 않다고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팽이를 꺼내 보여드리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제 밤도 꼬박 밝히셨지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해요. 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잘살고 미국놈도 쫓겨난대요. 그렇지요?》

아버님께 소곤소곤 말씀드리신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방긋 웃음을 지어보이시며 밖으로 달려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아버지대원수님의 건강부터 생각하시였습니다.

제 14 과

농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느날 부모님을 따라 한 농촌마을에 가시였습니다.

논두렁길을 걸으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민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 저렇게 힘들게 물을 푸지 않고는 농사를 못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이때 아버지대원수님께서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기계로 물을 퍼올려 농민들의 일도 헐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께 《네가 커서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서 커서 농민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고 우리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리라 굳게 마음다지시였습니다.

제 15 과

《어머님이 제일 기쁠 때는 어떤 땐가요?》

어느날이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댁으로 한 녀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녀성은 김정숙어머님께 백두산에서 일제와 싸우시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의 청을 받으시고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의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도 어머님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계시였습니다.

그러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머님

의 손을 꼭 잡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이 제일 기쁠 때는 어떤 땐가요?》

《어머니가 제일 기쁠 때는 아버님께 만족을 드리는 때란다. 아버님께서 만족하시여 크게 웃으실 때가 제일 기쁘단다.》

그러자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님을 내내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머님처럼 아버지대원수님께 기쁨만을 드릴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제 16 과

아버님께서 쓰실 종이

어느날이였습니다.

녀성항일투사선생님이 김정숙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원수님께서 혼자 다림질을 하고계시였습니다.

급히 다가간 투사선생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흰종이를 다리고계셨기때문입니다.

그는 얼른 다리미줄을 떼놓았습니다.

그때에야 투사선생님을 보신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시였습니다.

투사선생님은 전기장난을 하면 손을 델수 있고 불이 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난 장난하지 않아요. 종이를 다림질해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투사선생님은 종이는 다림질하는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또박또박 말씀하시였습니다.

《아지미, 이건 우리 아버님께서 쓰실 종이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께 드리는것은 무엇이나 제일 깨끗하고 좋은것으로 골라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종이에 구겨진 자리가 있지 않아요.》

투사선생님은 너무도 놀랍고 감동되여 위대한 원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대원수님을 받드시는 마음이 남달리 뜨거우시였습니다.

제 17 과

용감해야 땅크도 비행기도 탈수 있다

어느 봄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경사진 잔디밭에서 《썰매》를 타는것을 보시였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급하지 않아 《썰매》가 잘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사가 급한 산언덕에서 《썰매》를 타자고 하시였습니다.

아이들은 두눈을 크게 뜨며 겁나하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한번 타는것을 보라고 하시면서 《썰매》를 들

고 산언덕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썰매》우에 앉아 쏜살같이 달려내리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앞을 다투어 산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뒤걸음질쳤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다시한번 《썰매》를 타보이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아이들은 여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용감해야 땅크도 탈수 있고 비행기도 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한 아이씩 같이 《썰매》를 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아이들이 혼자서 《썰매》를 탈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에게 용감성을 키워주시였습니다.

제 18 과

보통강일터에 나가시여

1946년 봄 평양에서는 보통강의 물길을 바로잡는 큰일이 시작되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드는 일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매일같이 이 일터에 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일터에서 질통에 흙도 퍼담으시고 고쳐놓은 삽과 곡괭이를 날라다주기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 어머님의 질통에 흙을 퍼담으실 때면 어머님께서는 질통을 지신채 무릎을 꿇어앉으시였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날래게 흙을 퍼담으시고 어른들처럼 삽등으로 흙을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과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온 일터에 널리 퍼져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대원수님의 높은 뜻을 힘껏 받들어나가시였습니다.

제 19 과

나 혼자 올라왔어요!

해빛이 쨍쨍 내려쪼이는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세바퀴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려고 하시였습니다.

오르시다가 미끄러져내리면 다시 또 오르군 하시였습니다. 사흘째나 이렇게 하시였지만 언덕받이에 가서는 자전거가 자꾸만 뒤걸음질쳤습니다.

운동모자도 웃옷도 땀에 다 젖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자전거 발디디개를 더 힘껏 밟으시였습니다.

이제는 언덕우에 거의다 오르시게 되였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경위대원이

뒤에서 자전거를 밀어드렸습니다.

자전거는 언덕우에 쑥 올라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예요. 아저씨가 밀어주었어요.》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언덕아래에 서계시는 어머님을 향해 웨치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아래에 내려가시였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시였습니다. 허리를 바싹 굽히고 자전거의 발디디개를 힘차게 돌리시였습니다.

드디여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언덕우에 올라서시였습니다.

《어머니, 나 혼자 올라왔어요!》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두손을 높이 들어 흔드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이나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시였습니다.

제 20 과

만경봉에 오르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아버지대원수님과 함께 만경봉에 오르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경대의 경치를 바라보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에게 만경대는 경치도 아름답지만 나라를



만 경 봉

위해 싸운 만경대사람들의 마음은 더 아름다왔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였습니다.

참으로 만경대일가분들은 모두가 왜놈을 치고 나라를 찾는 싸움에 한몸을 바치신 애국자들이고 혁명가들이시였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나어린 원수님께 만경대사람들의 뜻을 이어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참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씩씩하게 대답올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만경봉에서 아버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시며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시였습니다.

제 21 과

《나도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예요》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잠에서 깨여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어머님을 보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찬 손을 잡으시고 어디 갔다오시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날씨가 사나와 집주변을 돌아보고 들어온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였습니다.

매일 같은 대답만 할수 없게 되신 어머님께서는 어느날 아드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란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마음속깊이 새기시였습니다.

그 다음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나무총을 들고 댁정문에 나가시여 차렷자세로 서계시였습니다.

아드님을 보신 어머님께서는 왜 그렇게 서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나도 아버님을 보위하는 경위대원이예요.》라고 대답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대원수님을 보위하시는 어머님의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나가시였습니다.

제 22 과

살뜰한 보살핌

어느 겨울날이였습니다.

거리에 나가시였던 어머님께서 한 아이를 업고오시였습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서 울고있던 아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뜰히 돌봐주시였습니다.

재미나는 그림책과 놀이감도 꺼내주시고 친한 동무처럼 이야기도 나누시였습니다.

식사때에는 맛있는 반찬그릇을 그 아이의 앞에 놓아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다주려고 하실 때였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웃장에서 나어린 원수님의 새 옷을 꺼내시여 그 아이에게 입히려고 하시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웃집어머니가 어머님을 말리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나는 이 옷을 안 입어도 좋아요. 어서 저 애에게 입혀주자요.》

그러시고는 어머님을 도와 그 아이에게 단추를 채워주시였습니다.

그 아이를 바래주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다시 방으로 달려들어가 새로 나온 그림책과 놀이감자동차를 내다주시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꼭 안고 어머님의 등에 업혀 떠났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23 과
《내가 고치겠어요》

어느해 여름날에 있은 일입니다.

이웃집어머니가 고장난 다리미를 들고 김정숙어머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댁에는 위대한 원수님께서 혼자 계시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되돌아가려는 때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할줄 안다고 하시며 다리미를 받아드시였습니다.

방안으로 들어오신 위대한 원수님께

서는 댁에 있는 다리미에 그 어머니의 다리미줄을 꽂고 전기를 련결해보시였습니다.

다리미가 따뜻해졌습니다. 줄에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나사틀개로 다리미안을 열어보려고 하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만두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고치겠어요. 어머니가 하시는걸 보아서 나도 할줄 알아요.》

그러시고는 나사못을 뽑고 웃덮개를 살짝 들어낸 다음 찬찬히 살펴보시였습니다.

꼬불꼬불한 줄의 한곳이 끊어져있었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그것을 제꺽 이으시였습니다.

이웃집 다리미는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른들이나 할수 있는 일도 척척 해내시였습니다.

제 24 과

장군복을 입고 다지신 결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장군복을 입게 되시였습니다.

어머님과 항일투사선생님들,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장군복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군사놀이를 하실 때 입으시였던 장군복

목깃과 팔소매, 바지에는 붉은 줄을 치고 어깨에는 큰 별을 달았습니다.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장군복을 입으신 나어린 원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시였

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너는 이 군복을 입고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는 굳센 마음을 키워라.》 하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아버지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나라의 용감한 장군이 되겠어요.》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였습니다.

제 25 과

룡 마 장 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말타기를 즐겨하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부모님앞에서 말타는 솜씨를 보여드리게 되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 말고삐를 틀어잡고 점점 더 높은 속도로 달리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좁은 길 한가운데 소달구지가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말고삐를 잡아채시며 달리던 말을 순간에 멈춰세우시였습니다.

《괜찮아.》

아버지대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만족해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총쏘는 련습도 하시였습니다.

그럴 때면 말잔등에 바싹 엎디여 경위대원들과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며 내달리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스쳐지나가는 목표물에 권총을 쏘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룡마를 탄 장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에 말타기를 즐기시며 장수힘을 키우시였습니다.

제 26 과

닭은 어떻게 물을 먹을가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어느 한 지방에 나가계실 때였습니다.

어느날 닭모이를 주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재미나는것을 알아내시였습니다. 톡톡 모이를 쫏던 닭들이 물을 먹는데 이상스레 주둥이를 하늘로 곧추 세우는것이였습니다.

다른 집짐승들은 물을 먹을 때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지 않는데 닭은 참 이상하였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였

습니다.

《닭은 왜 물을 먹을 때 목을 하늘로 쳐들가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기웃거리였고 또 어떤 사람은 닭은 본래부터 물을 그렇게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로 달려가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닭이 물을 먹을 때 잘 살펴보면 알수 있다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닭우리곁으로 다시 가시여 지켜보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보시고 점심후에도 살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틀만에 끝내 알아내시였습니다.

닭은 혀가 짧아서 물을 빨아먹지 못하고 주둥이에 묻혀가지고 우로 쳐들어 넘기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르는것은 알 때까지 깊이 파고드시였습니다.

제 27 과

《난 미국놈들을 몽땅 쏘아 눕히겠어요》

주체36(1947)년 가을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금강산 삼일포로 가시였습니다.



삼 일 포

여기서 어머님께서는 물오리를 멋지게 쏘아맞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 어떻게 총을 그렇게 잘 쏘시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이 크고 련습을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자면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총을 잘 쏠래요.》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굳게 맹세하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신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총을 메고 뒤마당에 나가시였습니다.

한 일군이 말뚝을 목표로 박아드렸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목표를 미국놈들이 있는 남쪽에 세워달라고 하시였습니다.

일군은 얼른 목표를 옮겨세웠습니다.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리시여 한눈을 감고 목표를 겨누시였습니다.

《땅 땅, 뽕 뽕…》

한참《사격》하시던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난 미국놈들을 몽땅 쏘아눕히겠어요. 우리 금강산을 빼앗지 못하게요.》

위대한 원수님께서《사격》하시는 소리는 저 멀리 남쪽하늘가로 힘있게 울려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에 미국놈들을 몽땅 쳐부실 굳은 마음을 다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1학년용)
제 3 판

집 필 **량인옥**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주 영** 콤퓨터편성 **정봉순**

장 정 **류명심**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7(2008)년 8월 28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2월 7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17일

교－11-보-191 값 10 원